행정안전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0. 1.(수) 12:00
(지 면) 2025. 10. 2.(목) 조간

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숙박요금 특별합동점검 실시

- 숙박·외식업소 등 가격표시 이행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(10.1.~10.31.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보건복지부·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·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(금)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·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.

□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·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,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, 경고·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10월 1일(수)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.

○ 또한,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.

□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경주시 누리집 메인 배너와 경주시 콜센터 054-120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.

□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'바가지요금 신고센터'를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.

○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메인 배너 게시, 지역 소식지 및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신고센터 안내를 적극 알림으로써 관광객과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상시 신고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.

□ 한편, 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·홍보하고,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 가격 안정 노력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"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경주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"라며

○ "정부와 지자체,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고,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경주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신뢰를 한층 높이길 기대한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	책임자	과 장	채경아 (044-205-3902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숙 (044-205-39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